

## 제주 토착종교와 외래종교의 충돌과 질서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개종주의(Proselytism) 비교 전략을 중심으로\*

유요한\*\*

### 1. 서론

- 1.1. 제주도의 주요한 종교적 특징들
- 1.2. 개종주의(Proselytism) 설득 방식으로서의 비교전략
2. 불교와 유교의 개종주의: 자신 중심의 질서 속에 토착종교 수용 시도
  - 2.1. 불교와 유교의 제주 정착
  - 2.2. 유교의 개종주의와 토착종교: 조선시대 후기를 중심으로
  - 2.3. 불교의 설득력과 토착종교: 20세기 불교의 성장 이후를 중심으로
  - 2.4. 소결
3. 기독교의 개종주의: 공격적 개종주의와 “새 포교 방식”
  - 3.1. 초기 가톨릭의 공격적 개종주의
  - 3.2. 김원영 신부와 이기풍 목사의 개종주의 설득 방식
  - 3.3. 해방 이후 가톨릭과 개신교의 개종주의 전략
  - 3.4. 소결
4. 결론

### 1. 서론

#### 1.1. 제주도의 주요한 종교적 특징들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0-327-A00176).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제주도는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아홉 개의 행정단위 도(道) 중에는 가장 작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島)이다.<sup>1)</sup> 육지로부터 150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문화적 특징들을 발전시켜왔다.<sup>2)</sup> 대중적인 무속 토착종교가 지금도 많은 제주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제주 문화의 여러 특징들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무당인 심방을 중심으로 하는 토착종교의 신화적 사고를 받아들이며 의례에 참여한다. 아쉽게도 공식적인 인구조사의 종교 관련 질문지는 제도화된 종교들만 포함하고 있어서 얼마나 많은 제주 주민들이 스스로를 토착종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질문지의 보기에 포함된 종교 중 하나를 신봉한다고 말하지 않는 주민들(49%, 2005년 11월 인구조사) 중에 전통적인 종교적 사고와 행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즉 제주 전통 무당인 심방을 불러 굿을 하고 마을 공동체 제의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절이나 교회, 성당에 가지 않기에 종교가 없다고 답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스로를 불교인이라고 말하는 32.7%의 주민들 중에도 심방을 찾아가 개인적인 문제를 의논하고 심방이 집전하는 전통 의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들은 스스로 종교가 없다고 하거나 불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심방이 쳐주는 점(占)과 전통 의례의 효용성을 믿는다. 수치에 나타나지 않는 제주 토착종교의 영향력은, 제주도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토착종교 공동체 의례가 열리는 곳을 찾아가 제사상 앞에서 절하며 예를 표하는 모습이나, 여전히 여러 마을에서 주민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심방이 주도하는 공동체 의례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다른 지역에 비해 기독교의 영향이 훨씬 약하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2005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를 가톨릭 혹은 개신교 교인이라고 밝히는 사람들이 29.2%이고, 불교인의 비율은 22.8%이다. 그러나 제주도에는 기독교인이 단지 17.5%인 반면 불교인의 비율은 32.7%에 이른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분포 역시 전국의 통계와는 다른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05년 인구조사에는 전국에 개신교인이 18.3%이고 가톨릭 교인이 10.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개신교 선교 사업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해서, 10.3%의 가톨릭교인의 수가 7.2%의 개신교인의 수보다 많은 것

- 1) 2012년 1월 현재, 99,373 평방킬로미터의 남한 땅에 인구가 약 오천칠십오만 명이 살고 있으며, 제주도는 면적이 1,848 평방킬로미터이고 약 오십칠만 명의 인구가 거주한다.
- 2) 현용준, 『제주도 사람들의 삶』, 서울: 민속원, 2009 참조. 논쟁이 있을 만한 내용도 많이 포함하고 있으나, 의식주 생활, 생업, 관혼상제, 가족 제도, 친족 제도, 마을 공동체, 종교, 풍속, 호칭 및 이름 등 제주도 문화의 다양한 특징을 정리했다.

을 볼 수 있다. 이미 “외래” 종교의 딱지를 떼고 종교 지형에서 주류를 형성한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도의 기독교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은, 토착종교의 색채가 강한 제주도의 토양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는 일이 다른 곳에서 보다 더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무속 토착종교는 오래 전에 한국에 들어온 외래종교인 불교와 유교와는 조화를 이루며 공존해왔다. 토착종교, 유교, 불교가 큰 어려움 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조화롭게 공존해온 것은 제주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있었던 일이기도 하다. 오랜 세월 공존해 오면서 토착종교, 유교, 불교의 공통적인 면들이 자연스레 부각되었고, 때로는 자신의 종교 체계 속에 다른 두 종교의 요소들을 통합시키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불교와 유교가 제주도에 “외래” 종교로 처음 유입되었을 당시에는 두 외래종교와 토착종교는 서로에게 낯선 타자(他者)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외래종교로서 불교와 유교 역시 토착종교적 행위와 사고 방식을 이어오던 주민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기 위한, 즉 개종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 1.2. 개종주의(Proselytism) 설득 방식으로서의 비교전략

이 논문에서 나는 “mission”이라는 단어의 번역어인 “전도”나 “선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이 단어가 자신의 종교를 전하는 것이 임무 혹은 사명이라는 종교 내부 관점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대신 “proselytism”이라는 단어를 번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프라임영한사전』은 이 단어를 “개종”과 “개종의 권유”라는 두 가지 의미로 번역한다. “proselytism”은 단순한 개종보다는 개종하도록 하는 제 행위의 의미로 더 자주 쓰인다. 그래서 『doopedia 두산백과』는 “proselytism”을 “개종주의”로 번역한다. 특히 『doopedia 두산백과』는 개종주의의 강제적인 성격을 강조하여, 그 일반적인 특징을 “심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거나 다른 사람의 신앙과 종교의식을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 그리고 “유혹하거나 강요하는 등 다양한 술수를 쓰며,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것 등”이라고 규정한다.<sup>3)</sup> 반면 Webster's Dictionary는 “proselytism”을 “어떤 종교나 종파 또는 어떤 의견이나 체제, 단체로 전향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한다.<sup>4)</sup> 나는 개종주의가 가진 포괄적 의미와 강제적인 뉘앙스를

3) 「개종주의(proselytism)」, 『doopedia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74679](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74679) (2012년 3월 18일 접속).

아울러, “특정 종교에 속한 사람이 자신의 종교의 세계관 및 행동 방식을 받아들 이도록 다른 종교인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와 그 배경에 있는 신념”이라는 의미로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제주도에 들어간 외래종교들이 기존의 종교체계 대신 자신들이 수용되도록 하기 위해 시도한 설득의 방식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강제적인 수단이 사용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종교와 기존 종교를 비교하여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기존 종교의 열등함을 강조하려는 시도나, 기존 종교의 행위나 사고방식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종교가 완전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모두 개종주의에 포함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 나는 유교, 불교, 기독교 등의 외래종교가 제주도에 들어와 토착종교와 접하면서 발생한 갈등과 질서 형성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외래종교들이 기 존 종교전통에 속한 사람들을 개종시키려 할 때 기존 종교와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비교 전략을 종종 사용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조나단 스미스(Jonathan Z. Smith)는 비교가 “사물이 어떠한지” 보다는 “사물이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는 점을 종교학자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었다. 곁보기에는 지적인 이해를 위해 수행되는 비교라도 사실은 특정 입장을 위하여 변명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sup>5)</sup> 또한 “같음”을 강조하여 자신을 정당화하고 타자의 열등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종교들이 비교를 통해 종종 추구하는 목적이기도 하다.<sup>6)</sup> 이 논문은 외래종교들이 어떤 유사성과 차별성을 강조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먼저 외래종교들은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 주민들에게 친숙한 기존 종교의 우주관이나 가르침을 이용하여 쉽게 접근한다. 토착종교에 지속될 만한 가치가 있는 행위방식이 있다거나 동의할 만한 옳은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이를 자신의 종교에 수용하기도 한다. 주민들에게 낯선 타자로서의 거부감을 없애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교는 기존 종교가 갖추지 못한 것을 갖추었다거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진리를 확실히 보여 준다는 등 자신의 우월성을 명확히 한다.

4) Webster's Revised Unabridged Dictionary, ed. by Noah Porter (Springfield, Mass.: G&C. Merriam Co., 1913), p. 1151.

5) Jonathan Z. Smith, *Drudgery Divine: On the Comparison of Early Christianities and the Religions of Late Antiqu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pp. 52, 143.

6) Jonathan Z. Smith, *Drudgery Divine: On the Comparison of Early Christianities and the Religions of Late Antiqu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pp. 54-84를 참조할 것.

앞으로 이어질 본론에서 개종주의의 설득 방식에 나타나는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유교와 불교의 우주론과 의례 체계가 토착종교의 그것과 같은 질서 내에 공존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반면 기독교는 기존 종교체계와의 차이가 더 뚜렷이 부각되었던 만큼, 이 둘을 구별하여 설명하겠다. 2장에서는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 속에 토착종교를 수용하려 했던 유교와 불교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3장은 기존 종교전통과의 갈등이 더 심했던 기독교의 개종주의 방식을 논할 것이다. 먼저 개괄적으로 역사적 배경을 살피면서 몇몇 문헌을 중심으로 개종주의 태도를 취하는 외래종교의 설득 방식을 검토하고, 현지 인터뷰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여러 종교의 입장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 2. 불교와 유교의 개종주의: 자신 중심의 질서 속에 토착종교 수용 시도

### 2.1. 불교와 유교의 제주 정착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다른 지역들에 비해 제주도에는 지금도 무속적 토착종교의 영향력이 더 크다. 불교, 유교, 기독교가 우리나라 전역에 오랜 세월 동안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무속 토착종교가 주변으로 밀려났지만, 제주도에서는 토착종교가 여전히 사람들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제주도에 들어온 유교와 불교는 개종주의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토착종교와 대부분의 시간 동안 큰 갈등 없이 공존했다. 이러한 상황은 제주에 외래종교가 유입되는 과정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제주 종교의 맥락과 관련된 한국 종교사의 흐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백제의 동성왕이 498년에 그리고 신라의 문무왕이 661년에 각각 제주도를 복속시키고 공물을 받은 기록이 있으나, 고려 숙종 때인 1105년에 이르러 탐라군으로 고려의 행정구역에 편입되기 전까지 제주도는 육지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았으며 육지와 교류도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4세기경에 한국에 들어온 불교가 제주도에는 12세기에야 유입된 것도 육지와 멀리 떨어진 지형의 영향일 것이다. 명목상으로 고려에 편입되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제주 출신의 “왕자”가 지배권을 행사하던 고려시대까지도 제주의 토착종교는 외래종교로부터 개종의 압박이나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아마도 몽골제국(원나라)의 침략지가

되었던 1273년부터 본격적인 외래종교의 유입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sup>7)</sup> 대략 100년 정도 몽골제국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동안 티베트 불교 양식을 수용한 몽골 불교가 제주도에 들어온 것이다. 제주도에 주둔했던 1,700명의 몽골 관원과 군인들은 큰 불교 사찰들을 건축했다. 당시 세워진 법화사에서 일하던 노비가 280명이었고 수정사에도 130명의 노비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몽골인들이 들여온 불교 세력이 대단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몽골의 지배가 끝나면서 불교 세력은 제주도에서 급격히 약화되어 조선 중기 이후에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게 된다.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의 불교와는 다른 모습을 지닌 몽골식 불교가 몽골인이 떠난 후 약화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15세기 전반에 기록된 『세종실록』과 16세기에 만들어진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제주도 승려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기르는 것을 비판하는 대목이 있다. 조선 지배층이 불교를 억제한 것은 잘 알려진 일이지만, 이에 더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불교와 다른 풍속을 지닌 제주도의 몽골식 불교는 설 자리가 더욱 좁았을 것이다.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제주도에 불교가 흔적만 남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1702년에 제주도에 파견된 이형상 목사는 오래된 사찰 건물들과 유적이 있지만 당시 남아있는 절은 세 개 뿐이고, 그나마 상주하는 승려는 없었다고 증언한다.<sup>8)</sup>

그러나 불교는 매우 융성했던 몽골 지배기와 어느 정도 교세를 유지하던 조선 전기까지 이미 제주도 주민들의 생활 전반과 토착종교의 신화와 의례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sup>9)</sup> 제주 토착종교 신화인 “본풀이”에서 불교가 토착종교에 영향을 끼친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먼저,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 「칠성본풀이」 등의 도입부에는 자식이 없는 부부가 불공을 드려 자식을 얻는 대목이 나온다. 토착종교 신화에서 불교 의례의 효용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초공본풀이」에는 무조신(巫祖神)이 된 삼형제가 불교 승려의 아들인 것으로 나오고, 「칠성본풀이」의 장설룡 딸 아기 씨는 승려의 아기를 가진 후 뱀으로 변한다. 불교 승려가 일반인들과 구별되는

7) 기록이 남기 이전의 제주도 종교, 외래종교의 유입, 몽골인들이 유입한 티베트 불교와 토착종교의 결합 등은 현용준의 설명을 참조했다. 특히 현용준, 『제주도 사람들의 삶』, 86-87, 147-148, 170-172, 261-266쪽 등을 볼 것.

8) 이형상, 『남한박물: 남쪽 벼슬아치가 쓴 18세기 제주 박물지』, 이상규·오창명 역주, 서울: 푸른역사, 2009[1704], 113-114쪽. 여기에 대해 현용준은 대처승들이 이형상 목사를 피해 도피했기 때문에 절에 승려가 없었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현용준, 『제주도 사람들의 삶』, 265쪽.

9) 현용준, 『제주도 사람들의 삶』, 266쪽. 현용준은 제주도에 자리를 잡은 티베트 불교가 토착종교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끼쳤다고 말한다.

능력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승려가 결혼하여 아이를 가졌던 몽골 지배기 및 조선 전기 제주의 풍속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삼승할망본풀이」에서 산신(產神) 삼승할망이 생불왕(生佛王)이라 불리는 것도 불교의 영향과 무관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sup>10)</sup> 본풀이가 고대의 이야기로부터 조선조 말엽의 삽화까지 반영하여 현재의 형태로 구성된 것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sup>11)</sup> 여기서 언급한 사례들 모두가 20세기 초에 갑자기 삽입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풀이에 반복해서 불교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20세기 초에 제주도에 사찰이 다시 세워지고 불교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을 때 주민들에게 낯선 종교는 아니었을 것이다.

유교는 조선 정부가 파견한 지방관과 함께 제주도에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따라서 유교가 제주도에 정착하는 과정은 조선시대 유교가 지배층으로부터 대중들에게 보급되고 차차 뿌리를 내리는 과정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잘 알려졌다 다시피, 조선시대 지배층은 유교를 정통으로 내세우면서 불교와 무속적 토착종교를 어느 정도 용인하고 수용하는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물론 조선의 건국을 도운 사대부들은 처음부터 불교 교의를 비난하고 불교의 영향을 축소시키려 했고, 유교 지배층이 무속 의례를 경시하며 무당을 적대했던 것은 사실이다. 최종성의 말을 빌리자면, 조선 전기 유학자들에게 “불교는 벽이단론(闢異端論)의 대상으로서 정통론적 반(反)혼합주의의 목표”였고, 무속종교는 “음사론(淫祀論)의 대상으로서 정통행적 반(反)혼합주의의 대표적인 표적”이었다.<sup>12)</sup> 조선시대에 불교 승려와 사찰, 그리고 무당과 무속 사원은 모두 큰 도시 밖으로 쫓겨났다. 보드윈 월라벤(Boudewijn Walraven)은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조선왕조 초기의 신유교(Neo-Confucian) 개혁가들은 1400년부터 19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대중 종교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과정을 시작했다. 초기 개혁가들의 목표는 그들이 승인하지 않는 제사의 형태를 유교 의례들로 바꾸는 것이었다 … 지배 엘리트들의 신앙은 오로지 유교와 동일시되게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큰 위세를 누렸고 관원들까지도 때때로 무당들의 주장을 믿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조선시대에는 불교를 신봉하는 일이나 특히 무당과 접촉하는 일은 지배층의 지위에 맞지 않는 일로 여겨졌다.<sup>13)</sup>

10) 현용준(채록, 정리), 「제주도 신화」, 서울: 서문당, 2005[1976], 3, 4, 5, 9, 11장; 문무병, 양영자, 김순이, 「제주신화집1」, 제주: 제주문화원, 2010, 2, 3, 6, 9, 11 장 참조.

11) 현용준은 1850년부터 1922년까지 살았던 송대정이 「칠성본풀이」에 언급되는 것을 근거로 본풀이의 현재 형태가 아주 오랜 옛날의 이야기로부터 조선조 말엽의 사건까지 반영하여 구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현용준, 「제주도 사람들의 삶」, 65-66쪽.

12) 최종성, 「조선전기 종교혼합과 반(反)혼합주의: 유교, 불교, 무속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47 (2007), 48쪽.

그러나 조선 건국 당시부터 유교에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려던 사대부들의 의도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한반도에서 이전까지 무속적 방식으로 행해지던 가정 및 공동체 의례가 유교화된 것은 17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였다. 제주도에서는 이보다 더 늦은 19세기 초반이 되어서야 토착종교의 제사가 유교식 제사 형식으로 바뀌고, 유교식 포제가 마을 공동체 제의로 수용되었으며, 혼인이나 가족제도 역시 유교의 지침을 따르게 되었다.<sup>14)</sup> 게다가 유교 지배 이념을 펼치려는 지배층이 불교와 무속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와 무속종교는 대중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존속했다. 조선시대에 유교, 불교, 무속 토착종교는 나름의 조화와 질서 속에서 공존했던 셈이다.

이 세 종교의 의례 체계와 우주관은 어느 정도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공통점이 있었다. 이는 유교 지배층이 불교와 토착종교에 참여하는 대중들을 큰 어려움 없이 유교적 질서 내에 수용하는 데 기여했다. 불교 의례는 사대부들에 의해 음사로 비난을 받았지만 수륙재(水陸齋)와 같은 불교 의례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기신재(忌晨齋)처럼 유교와 불교의 혼합이 분명히 드러나는 의례도 거행되었다. 무속식 기우제(祈雨祭)와 별기은(別祈恩) 등의 무속 의례 역시 음사로 지목을 받으면서도 “국행차원의 의례로 수용”되었다.<sup>15)</sup> 유교, 불교, 토착종교의 우주에 대한 이해, 특히 사후(死後)에 대한 견해도 상당히 유사하다. 영혼에 대한 설명 역시 단일한 질서 속에서 공존할 수 있을 정도이며 때로는 상호보완적이기도 하다. 주지하는 대로, 유교는 국가, 지역 사회, 가정 등 전통적인 공식 의례 대부분을 담당했다. 하지만 유교는 대중들이 영혼을 저승으로 보내고 죽은 자를 위해 공덕을 쌓기 위해서 불교 의례를 선택하는 것이나, 원혼의 빛 미를 푸는 치유의 차원에서 무속적 토착종교의 의례에 의존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유교의 입장에서 기술하자면, 유교가 중심에 있는 질서 속에 불교와 토착종교를 하위에 위치시키고 자신의 우월적 위치를 확보한 것이다.

## 2.2. 유교의 개종주의와 토착종교: 조선시대 후기를 중심으로

13) Boudewijn Walraven, “Popular Religion in a Confucianized Society,” in JaHyun Kim Haboush and Martina Deuchler eds., *Culture and the State in Late Choson Kore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Asian Center, 1999), p. 195.

14) 현용준, 「제주도 사람들의 삶」, 192, 210-211, 276쪽.

15) 최종성, 「조선전기 종교혼합과 반(反)혼합주의」, 62, 66, 69-70쪽. 이외에도 조선시대 유교, 불교, 무속종교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이 논문을 참조했다.

조선시대 제주도에서는 불교 등 외래종교의 유입이 늦었고 그 세력이 다른 지역보다 매우 약했기 때문에 대중들의 토착종교 의존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었다. 「남한박물」에서 이형상 목사는 육지에 비해 무속의 세력이 100배 더 세다고까지 말했다. 이형상에 따르면 18세기 초 제주도에 심방(무당)은 1,000명 정도나 되었다. 당시 제주도에 전체 가구가 9,200개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심방의 수가 매우 많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16)</sup>

무속적 토착종교는 지방관들에 의해 간헐적으로 핌박을 받기도 했다. 매우 충실한 유학자였던 이형상 목사는 토착종교를 억압하여 1년 3개월의 짧은 재임기간 동안 129개의 신당(神堂)을 파괴하고 무속 의례를 금하였으며, 심방 285명에게 농사를 짓도록 명령했다. 조선시대에 유학자들이 무속 의례를 비(非)유교 의례인 음사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류로 간주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형상 목사의 조치도 이해할 수 있을 법하다.

그러나 토착종교에 대한 억압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다가 그치고 말았다. 이형상 목사의 뒤를 이어 부임한 이희태 목사는 파괴된 신당을 다시 짓고 무속 의례도 허용하였다. 대부분의 지방관들은 토착종교 의례를 허용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후원하거나 주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말까지 입춘굿과 같은 무속 의례는 목사들의 후원을 받아 관청 건물과 마당에서 실시되었다. 정의현 관아 내부에는 조선시대 현감이 지었다는 “관청할망당”이라는 신당이 지금도 남아있다.<sup>17)</sup> 유교 국가인 조선의 지방관이 통치한 제주도에서 토착종교는 이렇게 끈질긴 생명력을 보이며 살아남았다. 대중들은 토착종교의 의례와 사고 방식에 친근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다.<sup>18)</sup> 제주도에서는 육지에 비해 토착종교의 영향력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관에서도 그만큼 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

16) 이형상, 「남한박물」, 117쪽.

17) 서귀포 송산동 칠성당도 “관청할망당”이라고 불리지만, 관이 적극적으로 토착종교를 수용한 사례인 정의현 관아 내부에 지어진 신당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송산동 당신(堂神)은 공직에 나간 사람의 일이 잘 풀리게 하고, 소송이 걸리거나 감옥에 간 사람을 도와주는 등 관(官)과 관련된 여러 일을 수호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다.

18) 제주 지방관들이 무속 의례를 지원하거나 적어도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것은 무속 의례를 행하는 주민과 심방들에게 부과했던 지방 세금 수익이 상당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다. <제 42회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콜로키움>(2010. 5. 20)에서 Kyoim Yun이 발표한 “Political Economy of Cheju Shamanism during the Choson Dynasty” 참조. 그러나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제주도의 무속 의례를 인정했다는 것은 토착종교 자체의 힘을 고려하지 않은 설명이다. 조선의 지배층은 다른 지역에서도 토착종교를 비공식적으로 인정했고 무속 의례에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으나 제주에서만큼 토착종교와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지는 않았다.

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유교의 세계관은 무속적 토착종교의 세계관과 크게 충돌할 정도로 다르지 않았으며 유교 의례 체계 역시 무속 의례를 통제하며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이 있었다. 달리 말하자면, 유학자 출신의 관료들이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질서 속에 토착종교를 수용한 것은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월라벤은 “신유교의 우주론은 유교와 대중 종교를 조화롭게 화합시킬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교의 개념들이 완전히 철학적으로 정교하게 상술된다면 세련되고 복잡하겠지만 때로는 대중적인 신앙들과 거의 다를 바 없이 간단한 용어로 표현되었다. 우주에 대한 대중들의 견해는 덜 체계적이고 덜 정돈되었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즉 인간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세계와 영혼들과 신들의 세계가 같은 원리에 따라 작동하며 이 두 세계 사이에 엄청나게 초월적인 구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우주론이다. 유교와 대중적인 종교 모두 인간의 행운과 불행이 보이지 않는 다른 영역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도 같다.<sup>19)</sup>

이처럼 유교와 토착종교의 우주에 대한 이해가 유사했기 때문에, 유교를 이념으로 삼은 조선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토착종교를 무시하면서도 대중들이 무당들을 자주 찾아가고 무속 의례에 참여하는 것을 아주 큰 문제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다. 조선시대 지배층은 유교를 흡 없고 완벽한 최고의 지위에 올려놓고 토착종교를 가장 낮은 위치에 자리매김하면서도 이를 아예 부정하지는 않았던 것이다.<sup>20)</sup> 한편으로는 토착종교를 유교 중심의 질서 속에 위치시키고 유사성을 인정함으로써, 대중들은 전통적으로 수행해온 무속적 의례 대신 유교 의례에 참여하는 데 큰 거부감을 갖지 않을 수 있었다.

육지에 비해 더디기는 했으나 제주 주민들도 별 거리낌 없이 유교를 받아들였고, 19세기 초부터는 제주도에서도 유교의 방식에 따라 가정 및 공동체 의례를 수행하는 일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이 의례들은 ‘유교 의례’라기보다는, 토착종교 의례를 수용하거나 양자를 통합한 ‘유교화된 의례’인 경우가 많았다. 오늘날에도 유교 의례와 토착종교 의례가 공존하고 있는 사례들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지금도 유교식 공동체 의례인 ‘포제(醡祭)’를 행하는 여러 마을에서 토착종교 공동체 의례도 같이 시행된다.<sup>21)</sup> 다른 유교 의례와 마찬가지로 포제는 남성들이 담당

19) Walraven, “Popular Religion in a Confucianized Society,” pp. 166–167.

20) Walraven, “Popular Religion in a Confucianized Society,” p. 195.

21) 현용준, 「제주도 사람들의 삶」, 253–254, 276쪽 예를 들어, 제주시 해인동에서는 1월에 여성 주도로 마을 당제를 수행하고, 7월에 남성들이 포제를 집전한다. 애월리에서는 포제와

하고, 토착종교 의례는 대개 여성들이 주도한다. 제주도에 유교문화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당제(堂祭, 혹은 당굿)'라는 무속의례에 참여했으나, 19세기 초반 유교 의례가 폐지면서 역할이 나뉘게 된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도 공동체 및 가정 의례에서 남성들만이 유교 제사를 집전하거나 참례할 수 있고, 여성들은 음식을 준비하거나 정리하는 등의 제사를 돋는 일만 맡는다. 그러나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 시행하는 토착종교 의례의 경우 유교 의례에서 배제된 일반 여성들이 주가 되어 진행된다.<sup>22)</sup> 둘째, 풍어를 위해 바다의 신에게 바치는 해신제(海神祭)나 제석할망에게 풍년을 비는 공동체 의례인 제석제(帝釋祭)를 유교식으로 수행하는 마을들도 있다.<sup>23)</sup> 보통 해신제와 제석제는 심방이 주도하는 데 반해, 이 마을들에서는 남성들 중 제관을 뽑아 유교식 공동체 의례를 수행하도록 한다.셋째, 몇몇 마을의 포제는 마을의 당신(堂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sup>24)</sup> 마을 공동체 의례인 포제를 유교식으로 행하면서도 마을 주민들은 사람과 곡물의 화복을 주관하는 포신(醡神)과 토지신(土地神) 외에도 마을의 토착 당신을 제사를 바치는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넷째, 많은 제주도의 가정들이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면서도 조상뿐 아니라 제주도의 토착 가신(家神)들에게도 제물을 바친다.<sup>25)</sup> 제주도 전통 방식의 제사에서는 제관 중에서도 초현관을 맡은 장손이, 대문에 머물면서 마루방 앞쪽을 지킨다고 믿어지는 문전신에게 음식상을 바친다. 이는 육지의 유교 제사에서는 볼 수 없는 절차이다. 부엌인 '정지'의 조왕신에게는 주부가 모든 제물을 조금씩 사발에 담아 부엌의 솔 뒤에 숟가락으로 떠 던지는 식으로 바친다. 지금은 점점 드물어지고 있지만, 어떤 가정에서는 뒷마당에 모셔진 밧칠성과 고팽에 자리한 안칠성에게 제사 중 음식을 바치기도 한다.<sup>26)</sup>

---

당제 모두 1월에 열리는데, 먼저 남성들이 유교식 포제를 지낸 직후에 여성들이 포제에 사용된 음식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여 당제를 치른다.

22) 육지에서는 조선시대 무속 종교를 억압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무당의 직무는 주로 여성이 담당하였지만, 최근까지도 제주도에서는 남성 심방의 수가 여성 심방의 수보다 많았다. 근대화 운동이 본격화되던 1960년대 이후에 남성 심방의 일을 여성 심방이 이어받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3) 현용준, 「제주도 사람들의 삶」, 276쪽.

24) 조성윤, 이상철, 하순애, 「제주 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서울: 백산서당, 2003, 181, 186, 243-4쪽.

25) 현용준, 「제주도 사람들의 삶」, 226-227쪽.

26) 「칠성본풀이」, 「월정본향당 당신본풀이」, 「토산 여드렛당 당신본풀이」 등의 제주신화에는 칠성신을 잘 대접하고 특히 집으로 모신 가정은 풍요의 복을 받는 반면 박대한 사람의 집은 화를 입는다는 신앙을 반영하는 내용이 나온다. 현용준, 「제주도 신화」, 199-210,

조선시대 한반도 다른 지역에서는 제주도에서처럼 토착종교 의례를 관청 건물에서 시행하고 관청 마당에 신당을 세우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매우 급진적으로 제주도의 종교를 유교식으로 개혁하려던 이형상 목사의 시도는 곧 실패로 돌아갔다. 이형상 목사가 육지보다 100배나 된다고 말했을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토착종교를 단지 억압하거나 축출하는 것은 주민들이 유교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다시 말해 '개종시키는' 현명한 방법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다. 제주도에 유교의례가 널리 퍼진 후에도 토착종교 의례와 함께 수행되었다는 것은 주민들이 유교가 토착종교 전통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납득했다는 말이다. 유교는 토착종교와 공유하는 유사성을 인정하고 토착종교 의례를 유교가 주도하는 하나의 의례 체계 속에 수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동시에 유학자 관료들은 대중들의 토착종교 우주론과 의례를 용인하면서도 토착종교가 유교보다 아래에 위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용인하고 때로는 지원하기도 하지만 유교 입장에서 토착종교 의례는 "전통적으로 의례주체와 의례의 대상신위 간의 분수와 질서, 그리고 일정한 테두리를 벗어나는" "음사"였다.<sup>27)</sup> 그들은 토착종교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옳은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진리이자 규범인 유교와 같을 수는 없다고 보았다.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참되고 올바른 방식은 오직 유교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록 토착종교가 완전히 틀리지는 않아서 관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들과 영혼을 섬기는 적절한 길이 될 수는 없었다. 결국 유교가 토착종교의 부분적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유교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개종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3. 불교의 설득력과 토착종교: 20세기 불교의 성장 이후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이후 특히 국가와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유교의 영향력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매우 약해졌고,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조선시대에 세력이 약했던 불교는 제주 화북 출신의 안봉려라는 승려가 1908년 관음사를 창건한 이래 급속하게 성장하여 지금은 제주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이전까지 주민들에게 낯설었던 불교가 갑자기 융성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제주 토착종교의 신화와 의례에 불교의 영향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토착 주민들이 불교에 대해 어느 정도

225-231, 247-254쪽; 문무병 외, 「제주신화집1」, 265-279쪽 참조.

27) 최종성, 「조선전기 종교혼합과 반(反)혼합주의」, 48쪽.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잘 알려진 대로 불교는 대중적인 신앙과 의례를 포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토착종교에 참여해온 주민들은 어렵지 않게 불교에 친근감을 가질 수 있었다. 게다가 1960년대 근대화 운동 이후 무속적 토착종교가 “미신”으로 격하되고 무시되면서, 주민들은 더 세련되고 발전된 형태를 지닌 것으로 보이는 불교에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심방을 찾아 자문을 구하고 무속적인 의례를 집전하도록 초청하던 주민들 중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절에 있는 승려를 찾아가 심방이 하던 일을 대신하도록 부탁하고 있다. 절과 신당 두 곳에 모두 다니던 사람들이 요즘은 절에만 오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내가 인터뷰한 불탑사의 비구니 승려에 따르면, 심방에게 가는 것은 “미신적”이니 하지 말라고 자녀들이 만류하며 대신 절에만 가라고 권유해서 더 이상 신당에 가거나 심방을 만나는 일을 하지 않고 절에 더 열심히 오는 노년층 여성 재가신자들도 있다.<sup>28)</sup> 가파도 해운사의 승려는 심방이 수행하던 토착종교 의례를 자신에게 부탁하는 주민들이 종종 찾아온다고 말한다.<sup>29)</sup> 불교 승려가 토착종교 의례를 맡을 때면, 원래 의례의 목적은 그대로 두면서 진행 방식은 불교식으로 바꾸게 된다. 예를 들어, 집안의 가신들에게 음식을 바치면서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안택굿’의 경우, 신들에게 음식을 바치며 섬기는 대신 주요한 가신들이 거주한다고 여겨지는 대문, 부엌, 안방 등에서 불경을 암송한다. 해운사의 승려에 따르면,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는 불교 의례인 재(齋)를 살아있는 가족들의 행운과 안녕을 위해서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원래 토착종교 의례가 담당하던 기능을 불교 의례가 대신하여 수행하게 된 것이다. 해운사의 승려는 “제주도의 많은 스님들은 제주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반은 심방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말한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토착종교 의례가 불교식으로 변형되어 수행되는 사례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sup>30)</sup> 근대화 운동 이후부터 고팡과 마당이 없는 집을 짓거나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풍요신인 칠성신(뱀 신)을 더 이상 집에서 모시지 않기로 결정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벽돌과 짚으로 만들어진 칠성신의 신체(神體)를 집에서 치우려면 심방을 초청하여 신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의례를 수행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불교 승려를 초청하는 가정도 있다. 승려는 집에

28) 2010년 3월 20일에 제주시 삼양동 불탑사(조계종, 1914년 창건)에서 면접했다.

29) 2010년 6월 13일에 가파도 해운사(총화종, 2003년 창건)에서 면접했다.

30) 김동섭, 문순덕, 양영자, 「한국의 가정신앙: 제주도 편」,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31, 33, 36, 75, 93, 100, 105, 111, 133, 184쪽. 이 책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제주도 주민들의 종교 행위 양태를 현지조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물이다.

머물던 칠성신을 저승으로 보내기 위해 불경을 암송하고 신체를 절로 가져가서 죽은 사람들의 신주들과 함께 봉안한다. 장례를 비롯하여, 집안 곳곳에 있는 가신들에게 제사하고 기원하는 안택굿, 건축의례인 성주풀이, 집안의 행운을 빌기 위해 집터를 관장하는 토지의 신에게 바치는 토신제 등의 가정 의례들이 불교와 토착종교가 혼합된 형태로 불교 승려에 의해 진행된다. 갑자기 심하게 놀랄 만한 일을 당했을 때 빠져나갔다고 생각되는 넋을 다시 불러 들이는 의례인 “넋들이”도 승려가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비교적 가볍게 놀랐다고 생각되면 집안 어른이나 마을의 할머니가 간단하게 끝내고, 심하다고 판단될 때는 심방이 굿을 하는 것이 전통이었는데, 요즘은 승려가 기도를 하고 불경을 암송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금기를 어겨서 발생한 부정이나 위험인 “동티”를 없애는 정화의례 역시 예전에는 심방이 담당했지만 최근 승려가 독경을 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몇몇 마을에서는 바다의 신 요왕에게 제사하며 해상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공동체 의례인 “요왕제”를 승려가 집전하기도 한다. 불교식 요왕제는 초청 받은 불교 승려가 풍어와 안전을 보장해주도록 요왕에게 명령해 달라는 기원을 봇다에게 올리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심방이 수행해온 의례를 불교 승려가 대신하고, 토착종교 의례를 불교식 의례로 대체하는 것은 주민들이 토착종교와 불교의 연속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의례를 집전하는 불교 승려나 토착종교에서 불교로 개종하는 주민들 모두 불교와 토착종교가 같은 성격을 지니고 하나의 질서 체계 안에 있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질서 내에 존재하는 불교와 토착종교 중 불교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불경을 암송하고 봇다에게 기원하는 것이 토착종교 제사를 수행하며 토착 신들에게 기원하는 것보다 더 효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토착종교 의례를 불교식으로 변형시킨 의례들의 밑바탕에는 토착종교의 신화와 의례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불교보다 하위에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다.

불교는 사람들에게 개종을 강하게 권유하지 않으며 개종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내세우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의 의미가 포함된 협의의 개종주의를 표방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교가 토착종교보다 더 우위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토착종교에 의지해온 사람들의 마음을 끈다면 이 역시 개종주의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 지난 100년간 토착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개종한 종교가 불교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1908년 이후 100년 남짓한 기간 동안 불교는 제주도에서 가장 교세가 강한 종교로 성장했고, 이는 토착종교의 약화를 불러왔다. 하순에는 최근 시골 지역에서도 토착종교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기독교 때문이 아니라 불교에 의해서라고 지적한다.<sup>31)</sup> 하순애에 따르면, 불교 사원이 집중적으로 건축되던 때부터 토착종교가 약해지기 시작했고, 특히 불교 사원의 수가 늘어난 지역에서 토착종교의 약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제주도에서 불교가 사원을 계속 건축하며 교세를 확장하고 있고, 토착종교를 신봉해온 주민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설득하여 불교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유교와 마찬가지로 불교의 우주론도 토착종교의 우주론과 공존이 가능할 정도의 유사성을 지닌다. 불교와 토착종교 모두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신들과 영혼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믿는다. 무엇보다도, 두 종교 모두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른 세계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살아있는 사람이 수행하는 의례에 의해 죽은자의 상태와 지위가 향상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유사성을 근거로 불교는 적극적으로 토착종교의 세계관과 의례를 인정하고 포용해왔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불교는 토착종교 의례를 자연스럽게 불교 의례로 만들어, 주민들이 토착종교 대신 불교의 방식으로 복을 구하고 의례를 행하는 데 거리낌이 없도록 하였다. 불교가 광범위하게 토착종교의 영역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제주도 주민들이 지금까지의 사고 및 행위 방식을 버리지 않고도 개종이 가능했던 것이다.

불교는 이렇게 토착종교의 유사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자신의 우위와 우월성 역시 분명히 강조한다. 내가 인터뷰한 제주도의 승려들은 토착종교가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식을 제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토착종교의 사고와 행위는 인간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빠뜨리고 있고 오직 불교를 통해서만 이 핵심에 다가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볼 때 불교는 토착종교가 갖지 못한 더 발전되고 세련된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승려들은 토착종교를 포괄할 수 있는 신, 영혼, 저승 등에 대한 관점을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쉽게 접근하면서, 동시에 토착종교가 불완전하고 부적절하다는 것과 불교야말로 참되고 완전한 구원의 길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토착종교의 의례를 불교식으로 변형시킨 의례가 불교 우위의 세계관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토착종교에서 섬기는 하위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신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부처님을 섬기고 부처님에게 기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불교식 요왕제는 봇다에게 기원하여 토착종교의 신들에게 명령하도록 할 수 있다는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불교식 가정 의례는 불경을 암송하여 가신들을 다스리고 때로는 저승으

31) 조성윤, 이상철, 하순애, 「제주 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중 하순애, 2장 「제주도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화상」 (87-276쪽), 247-248쪽.

로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토착종교 의례를 불교식으로 변형한 의례는 토착종교의 신들의 세계를 수용하면서도 우주론 내에서 그보다 더 우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토착종교 의례가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불교에서는 더 효과적이고 우월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확고하게 한다.

제주도에서 불교는 주민들이 지금까지 따라온 토착종교의 사고 및 행위 방식과의 유사성과 연속성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우월성과 토착종교의 불완전성을 당연시한다. 불교로 개종한 주민들에게 불교는 토착종교의 신들보다 더 우위의 존재에게 기원하도록 해주며, 토착종교와 달리 “미신”으로 치부되지 않는 세련되고 제도화된 종교인 셈이다. 바로 여기에 주민들을 끌어들여온 불교의 힘이 있는 것이다.

## 2.4. 소결

외부에서 들어온 유교와 불교는 토착종교에 의지해온 주민들을 설득하여 새로 운 종교적 사고와 의례의 가치를 수용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조선시대에는 많은 주민들이 유교를 받아들였고, 근래에는 불교가 토착종교를 대신하여 주민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개종한 사람들뿐 아니라 개종시키려는 입장의 사람들도 토착종교의 효용성과 가치를 인정했다. 토착종교의 우주론과 의례에는 유교와 불교에 수용될 만한 유사한 요소들이 있었고, 유교와 불교가 부분적으로나마 토착종교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 유입된 종교로 개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이 외래종교들은 토착종교의 불완전성에 대비되는 완전함과 토착종교보다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여 자신들을 토착종교와 구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토착종교의 입장에서는 유교와 불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주 심방 여러 명과 인터뷰를 했다. 내가 인터뷰한 심방들 중에는 글을 잘하고 점을 잘 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한글을 읽을 줄 모를 정도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들에게 유교와 불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것은 별 소득이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자기 나름의 지식을 자랑하는 심방들에게 유교, 불교, 토착종교의 관계에 대해 묻자 주저하지 않고 세 종교에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심방이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본인도 40년 이상 심방으로 일해온 강모씨는 유교, 불교, 토착종교의 유사성을 잘 알고 있었고 한자를 써가며 이에 대한 본인 나름의 설명을 제시했다.<sup>32)</sup> 그러나 그는 불교 승려들이 심방의

일을 대신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승려들이 토착 신들과 관계를 맺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의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의 비판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의례주체와 의례의 대상신위 간의 분수와 질서, 그리고 일정한 태두리를 벗어나는 제사”를 “음사”로 규정하던 것과 유사하다.<sup>33)</sup> 내가 만난 몇몇 다른 심방들도 불교와 토착종교가 유사하지만 불교는 제주도의 신들을 기쁘게 하는 바른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승려들이 토착종교는 세계에 대한 참된 이해나 인간 구원의 올바른 길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

토착종교의 심방, 불교 승려, 조선시대 유교 관료 모두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의 유사성을 찾고 다른 종교에도 어느 정도의 진리와 효용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와 동시에 자신의 종교는 세계의 질서와 인간의 안녕을 위한 참되고 바른 길이며 다른 종교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3. 기독교의 개종주의: 공격적 개종주의와 “새 포교 방식”

#### 3.1. 초기 가톨릭의 공격적 개종주의

제주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유교는 이미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속적 토착종교와 공존하며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불교는 승려를 찾기 힘들 정도로 약화되었으나, 몽골 침략기에 크게 융성했고 조선 전기까지 어느 정도 교세를 유지했었기에 토착종교 신화에 계속 언급될 만큼 주민들에게 친숙했다. 반면 기독교는 멀고 낯선 서양에서 왔을뿐더러, 구원론과 우주론, 의례체계 등이 기존 종교 체계와는 완전히 달랐다. 기독교는 그때까지 대중들이 접했던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 더 분명하게 타자로 인식되었고, 그만큼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주 본당에서 일한 첫 가톨릭 사제였던 김원영 신부(1899~1901)는 『수신영약(修身靈藥)』에서 외래종교라는 이유로 “성교(聖敎)”, 즉 가톨릭을 거부하는 제주도 사람들에게 불교와 유교도 해외에서 들어왔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려 했던 것이다.<sup>34)</sup>

32) 2010년 6월 1일에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강모 심방의 집에서 면접했다.

33) 최종성, 「조선전기 종교혼합과 반(反)혼합주의」, 48쪽.

34) 김원영, 『수신영약(修身靈藥)』(1900), 김영환 역,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제주: 천주교 제주교구, 2001에 부록(757-799쪽)으로 실

가톨릭은 1801년 신유박해(辛酉迫害) 때 제주도로 유배 온 신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제주도에 들어왔으며, 한국 최초의 가톨릭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두 명의 프랑스인 주교와 함께 중국에서 인천으로 가던 중 제주도에 표류해 들어왔던 1845년에 제주도에서 첫 미사를 집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박해 때문에 1899년이 되어서야 제주에 본당(本堂, parish)이 설립되고 본격적인 가톨릭 교회의 활동이 시작되었다.<sup>35)</sup> 개신교는 1908년 한국에서 처음 목사안수를 받은 7명 중 하나인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제주도 선교를 시작했다. 이기풍 목사가 제주에 오기 전에도 육지를 방문했다가 개신교로 개종한 제주 주민이 몇 명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sup>36)</sup>

처음부터 기독교는 토착 주민들을 개종시키고자 할 때 전통적인 관습과 사고 방식을 포기하고 기독교의 세계관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권장했다. 가톨릭이 처음 제주 본당을 설립했을 당시에는 적극적인 개종주의를 추진할 수 있는 동기와 조건이 갖춰진 상태였다. 가톨릭에 대한 박해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였고, 고종이 “신부를 나처럼 대하라”라고 선언하는 등 정부가 교회의 전도를 승인하고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가톨릭 교회의 개종주의는 많은 주민들이 가톨릭에 반감을 갖게 될 정도로 공격적이었다. 초기 가톨릭 신자들이 가톨릭 교회에 반대하는 언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었고, 공공연히 신당을 파괴하거나 마을의 신수(神樹)를 베기도 했다. 신부들은 불법을 저지른 교인들을 보호하고 지방 행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가톨릭 신자들이 토착종교를 믿는 주민들에 대해 우월감과 오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토착종교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다. 가톨릭의 이러한 태도에 많은 주민들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가톨릭 신자와 다른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1901년 “이재수의 난”, “제주민란”, 혹은 “신축교난(辛丑敎難)” 등으로 알려진 대규모 무장 민중봉기로 이어졌다.<sup>37)</sup> 당시 주민들 중에는 제주의 초기 가톨릭 신자들이 매우 오만하며 서양에서 온 외국인들의 힘을 등에 업고 부당하게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

림.

35)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31-71쪽 참조. 제주 본당은 1977년에 제주 교구(diocese)로 승격되었다.

36) 이사례, 「이기풍, 순교로 삶을 마감한 한국 교회 최초의 선교사」, 서울: 기독교문사, 2008 중 이만열, 「이기풍 목사의 행적」, 30-31쪽;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138-145쪽.

37) 제주민란의 진행과정은 고성훈 외, 『민란의 시대: 조선시대 민란과 변란들』, 서울: 가람 기획, 2000, 335-344쪽을 참조할 것. 이 책은 제주민란의 반외세적 성격을 강조한다.

다.<sup>38)</sup> 1901년 봉세관 강봉현이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할 때 최형순을 비롯한 천주교인들이 실무를 맡으면서 민중들의 축적된 불만이 폭발하게 되었다. 반천주교 측과 천주교인 측의 무력 충돌은 민란군의 봉기로 이어져 350명의 신자들이 살해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봉기는 제주도에서 첫 세대 가톨릭 신자들이 자부심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가톨릭 개종주의가 매우 공격적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sup>39)</sup>

### 3.2. 김원영 신부와 이기풍 목사의 개종주의 설득 방식

신자들과 반가톨릭 입장의 주민들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지만, 가톨릭 개종주의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가톨릭은 제주도에 들어온 지 2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당시 제주 인구의 2.5%에 달하는 1,500명의 주민들을 개종시켰다. 단지 한 명의 프랑스인 신부와 한 명의 한국인 신부가 들어왔던 것을 고려하면 놀라운 급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가톨릭 신자들이 외국인 신부의 힘을 이용하여 위세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개종의 요인 중 하나이겠으나, 가톨릭이 단기간에 주민들을 끌어들이고 동의하게 만드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당시 제주 본당이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시켰는지는 『수신영약』을 참조하면 알 수 있다. 『수신영약』은 한국인 신부로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했던 김원영이 1900년에 쓴 글로, 여기서 김원영은 토착종교의 무속적 사고 방식과 의례를 강하게 비판할 뿐 아니라, 유교의 조상 제사와 효의 원리도 반박한다.<sup>40)</sup> 하지만 그는

38)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112쪽 참조. 박용규는 당시 신축교난을 보도한 일본 신문들의 기사를 토대로, 민중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가톨릭 신자에 대한 분노가 대단했었지만 외국인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한다. 봉기 지도자들이 외국인들을 해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개항 이후 외국 열강들에게 시달리던 조선 정부는 가급적 외국인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매우 고심했고, 봉기 지도자들이 이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350명의 한국인 가톨릭 신자가 이 때 살해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외국인들의 인명피해 기록은 없다.

39) 고성훈 외, 『민란의 시대』, 336-339쪽;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89쪽;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117-122쪽.

40) 이와 대조적으로, 김원영은 불교 의례나 교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불교와 유교가 원래는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라는 점에서 기독교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할 때와, 봇다가 역사적 인물이며 불교는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잠깐 언급할 뿐이다. 김원영은 “전에 절터였던 곳에 기 달고 축문하며 심방들이 경을 읊고 지방을 써 근처에 붙이고 주육을 차려놓고 굿을 한다”고 하며 이 굿이 “절터를 기념하는 뜻”으로 행해졌다고 말한다. 당시 절에 승려들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1900년 당시 제주도에 불교가 흔적의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친숙한 유교 개념과 전통적 사고 방식을 인용하여 가톨릭 교리를 설명하려 시도한다. 가톨릭이 완전히 낯선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받아들일 만한 친숙한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김원영은 『수신영약』의 상당 분량을 토착종교를 비판하는 데 할애한다. 유교와 불교가 진리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하면서도 “도(道)”나 “교(教)”로 부르는 반면, “심방굿”과 “각 신을 숭상”하는 토착종교만 “이단”이라고 부르며 강하게 비난한다.<sup>41)</sup> 그는 먼저 뱃 신(칠성신)을 집안의 가신으로 섬기고 뱃을 존중하는 풍속을 매우 강하게 비난하고, 토착종교 의례와 점은 믿을 수도 없고 효과도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 또한 그는 제주 주민들이 심방이 수행한 치병의례 후에 병이 나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속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한다. 기대한 결과가 실제적으로는 아주 드물게만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하며 그나마도 모두 우연히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김원영은 지금까지도 제주도에서 계속 행해지고 있는 스물한 개의 가정 및 공동체 토착종교 의례를 조목조목 언급하며 각 의례는 물론 관련된 신화 및 신화적 사고, 그리고 부정(不淨)의 개념과 정결 규칙까지 강력하게 비판한다.

또한 김원영은 『수신영약』에서 제주 주민들도 인식하고 있던 당시의 도덕적 문제들을 직접 거론하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비난한다. 특히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풍속은 빨리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주민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고 지적하며, 아주 적은 양의 술을 마시는 것은 용인될 수도 있으나 술을 아예 멀리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당시 제주 주민들이 천주교 신부들에게 찾아오던 이유가 서양에서 들여온 의약품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도 있다. 그는 몸을 위해서 서양 의약품만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영혼의 치료약인 신앙을 갖기를 갈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종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교회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주 본당의 프랑스인 신부와 김원영이 서양 약과 물품들을 주민들에게 나누어주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김원영은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하여 유교의 개념과 용어들을 반복하여 인용한다. 이는 중국에 온 서양 선교사들과 최양업 등 그의 선배 신부들이 원시 유학의 경전 내용으로 천주의 존재와 속성을 설명한 “인유론(引儒論)”의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sup>42)</sup> 또한 김원영 자신이 유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그는 기독교 교리나 기독교 우주론과 유사한 유교의 개념과

형태로 존재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김원영, 『수신영약』, 762, 772, 793쪽.

41) 김원영, 『수신영약』, 792쪽.

42)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87쪽.

우주론을 많이 언급한다. 예를 들어, 유교 고전에 나오는 “하늘”이나 “천제(天帝)”의 개념, 그리고 하늘과 연관된 한국 전통 속담 등을 인용하여 우주의 주인인 단 하나의 신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의 영혼과 육신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맹자를 인용하고 삼강오상(三綱五常)을 논거로 제시한다. 제주도의 토착종교와 풍속을 비판할 때 요, 순, 문왕 등 고대 중국의 성인들과 공자의 선례와 가르침을 인용한다. 설득력 있는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한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은 『수신영약』 전체에 계속 반복된다. 지방관들 중 이형상과 서린이 토착종교를 탄압했을 때 토착종교가 약화되었다는, 주민들에게도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기도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는 기독교가 외래종교라는 비판에 반박하여 불교와 유교도 외국에서 들어왔음을 상기시켰다. 이 역시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점들을 근거로 기독교를 옹호한 사례이다. 또한 천주 교리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한 모친”인 성모 마리아를 여러 차례 다루면서, 예수에 대해서는 머리말에서 기도문 형식으로 언급하고, 예수의 이름이나 표시로 “영적(靈蹟)”이 나타난다고 말하며 지나가듯이 이야기하는 정도 외에는 별 설명이 없다.<sup>43)</sup> 신의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 끔찍한 형벌을 받고 죽었다는 설명이 한국인들에게 낯설다는 것을 알고 이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원영은 당시 사람들에게 친숙한 신 및 우주에 대한 이해를 이용하여 개종시키고자 한 것이다.

김원영은 유교를 자신의 논거로 사용하는 한편, 가톨릭과 유교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며 가톨릭의 우월성을 선언한다. 그는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효를 실천하지 않는다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며, 하늘의 주인인 천주를 믿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효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44)</sup> 또한 그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고 돌려보내는 것과 죽은 영혼에게 절을 하는 절차를 특히 심하게 공격하며 조상제사를 비판한다. 진정한 제사는 조상보다 우월한 하늘의 신에게만 바쳐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오직 가톨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때에도 그는 요, 순, 우 탕, 공자, 증자, 주자의 가르침이 지금 잘못 지켜지고 있다고 말하며, “대군”이자 “대부모”인 천주에게 제사를 지내야 죽은 부모를 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유교를 토착종교만큼 강하게 비판하지는 않으면서도, 진정한 제사가 가톨릭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가톨릭의 우월성을 분명히 선언한다. 가톨릭교회가 “로마 교황에게 속한 것은 마치 머리가 육신의 위에 붙어 있음”과 같고, 가

43) 김원영, 『수신영약』, 758, 773, 777쪽.

44) 김원영, 『수신영약』, 764-766쪽.

톨릭이 “만민의 장손파”이자 유일한 “정도”라는 것이다.<sup>45)</sup> 그는 개신교를 비난하여, “천주 성교는 한 나무 한 줄기의 꽃꽃함이요, 저 열교[개신교]는 가지 모양”이므로, “가지인 열교는 정도가 아님이 명백히 드러나느니라”라고 말한다.<sup>46)</sup> 또한 김원영은 가톨릭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수신영약의 일부를 직접 살펴보자.

우리 성교인(聖教人)들은 사해오대주 안에 한 회와 한 몸과 한 예배와 한 믿음이 되어 한 머리에 상합(相合)하니… 이려므로 우리 성교만 정도요, 다른 도는 다 정도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어두운 도라 하겠으니… 우리 성교의 밖에서는 결코 구령(救靈)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영복 얻을 법책(法策)이 성교에만 있음이니…<sup>47)</sup>

김원영은 개신교를 “가지”라고 말하여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하며 유교를 논거로 삼아 가톨릭 신학을 뒷받침하지만, 가톨릭만이 정도이며, 가톨릭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수신영약』에는 가톨릭이 수용할 수 없는 토착종교 및 전통 풍속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아울러, 주민들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세계관을 이용하여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드러난다. 이에 반해, 개신교는 처음부터 유사성에 대한 언급 없이 기독교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제주도에 처음 개신교를 들여와 목회했던 이기풍 목사의 행적에서 엿볼 수 있다. 이기풍이 제주도에 온 것은 가톨릭이 들어온 지 9년 후였다. 김원영의 경우와는 달리, 이기풍은 의지할 수 있는 외국인의 도움을 받지 않았고, 그 때는 일본의 지배가 시작되고 있던 무렵이어서 서양 세력과 기독교에 대한 존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다. 또한 제주 주민들은 이재수의 난 이후 기독교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당연히 그는 첫 가톨릭 본당교회를 세운 신부들만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기독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격에 더 쉽게 노출되기도 했다. 그는 제주 토착 풍속과 의례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물리적인 폭력을 당했으며 거의 죽을 뻔할 정도로 심하게 맞은 적도 있었다.<sup>48)</sup> 이기풍은 기독교 교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토착종교 및 유교 의례를 엄

45) 김원영, 『수신영약』, 777쪽.

46) 김원영, 『수신영약』, 777쪽.

47) 김원영, 『수신영약』, 778쪽.

48) 이사례, 『이기풍, 순교로 삶을 마감한 한국 교회 최초의 선교사』, 98–100쪽; 성안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제주성안교회 100년사』. 제주: 제주성안교회, 2010, 104–118쪽.

격하게 금지했다. 그래서 그의 전도를 받아 개종한 초기 신자들 중에는 조상 제사에 참여하기를 거절하여 가정에서 고난을 겪은 사람들도 있었다.<sup>49)</sup> 이기풍은 뱀 신을 섬기고 뱀을 존중하는 토착종교 풍속을 비난하며 주민들의 집에서 칠성신체를 제거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sup>50)</sup>

여기까지는 이기풍 목사의 적극적 개종주의가 초기 가톨릭의 방식과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기풍이 김원영 신부처럼 유교나 토착종교의 세계관을 이용하여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는 거의 없다. 이기풍이 제주에서 했던 설교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으나, 이를 종합해보면 그가 인간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51)</sup> 그의 딸 이사례 역시 이기풍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주로 했다고 말한다.<sup>52)</sup> 『수신영약』이 전통적인 세계관을 이용하여 교리를 설명한다는 것, 그리고 한국인에게 낯선 예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기풍은 복음주의 개신교 선교사로서 한국인들에게 낯선 신학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던 것이다.

여기서, 이 논문이 주목하는 개종주의 비교 전략이 개종주의의 성공에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sup>53)</sup>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49) 이사례, 「이기풍, 순교로 삶을 마감한 한국 교회 최초의 선교사」, 107-108쪽.

50) 이사례, 「이기풍, 순교로 삶을 마감한 한국 교회 최초의 선교사」, 93, 97쪽. 이기풍의 딸 이사례는 이기풍이 칠성신과 뱀을 무시하여 두 차례 공격을 받았다고 증언한다. 한국 개신교회는 이사례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기풍의 뱀 신앙과의 충돌을 신화화했다. 이기풍이 뱀과 영웅적인 싸움을 벌인 것으로 그런 아동용 성경공부 교재가 발행되었으며, 거대한 뱀과의 싸움은 이기풍의 일대기를 그런 <순교보>(1974)라는 영화에서 중요한 장면으로 삽입되었다. 개신교 어린이들을 위해 최근 만들어진 이기풍 전기 만화에도 이기풍이 칠성신을 믿는 주민과 갈등하는 장면, 거대한 뱀을 죽이고 뱀에게 바쳐진 어린 소녀를 구해내는 장면들이 등장한다. 장하림, 「만화로 보는 이기풍 목사의 삶과 신앙 2」, 서울: JCR Kids, 2008, 78-104쪽.

51) 이기풍 목사의 설교 원고 중 지금까지 전해지는 「단장」, 「신조의 인」, 「산 소망」 등 3편을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가톨릭의 인유론(引儒論)과 같이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전통 사상을 인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설교들은 이사례, 「이기풍, 순교로 삶을 마감한 한국 교회 최초의 선교사」, 213-234쪽에 실려있다. 제주도에서 이기풍의 설교를 듣고 개종하여 훗날 목사가 된 이도종이 이기풍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도종은 이기풍의 설교를 들은 후 이기풍에게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며 개종을 선언했다고 하는데, 이는 이기풍의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박은배, 「하나님의 거처」, 서울: 새로운 사람들, 2009, 100쪽 참조.

52) 이사례, 「이기풍, 순교로 삶을 마감한 한국 교회 최초의 선교사」, 103-110쪽.

53) 아울러, 이 논문은 유사성을 부각시켜 낯선 자신의 종교를 친숙한 것으로 만들고 동시에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개종주의 방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개종주의가 이외에도

종교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요소들이 교세확장 시도의 성패에 영향을 끼친다. 이 중에는 종교 지도자의 개인적인 카리스마, 헌신, 능력 등도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이기풍 목사는 한국 개신교의 역사에 남은 열정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복음주의 방식으로 제주 주민들을 꾸준히 개종시킬 수 있었다. 선교를 시작한지 5년 후인 1913년에는 제주도에 여덟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약 400명의 신자들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sup>54)</sup>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 제주 선교 초기 단계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사람들을 개종시키려 했다. 김원영 신부와 이기풍 목사 둘 다 조상 제사, 뱀신앙, 그리고 전반적인 토착종교 의례들을 강력히 부정했다. 물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차이점이 있다.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 조상 제사를 비롯한 기존에 있던 제주 종교전통의 사고 및 행위 방식을 비판하지만, 가톨릭은 처음부터 전통적인 우주론과 기독교 교리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접근하려 했던 반면 개신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종교들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를 네 유형으로 분류한 폴 니터(Paul Knitter)는 주류 개신교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가톨릭은 여러 길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결국 가톨릭교회라는 하나의 규범만을 허용한다고 표현한 바 있다.<sup>55)</sup> 전통적 방식을 통해 가톨릭 교리를 설명한 김원영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한 이기풍에게도 니터가 말한 것과 유사한 차이가 보인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결국 자신이 신봉하는 방식의 기독교만이 인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점은 일치한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이기풍은 물론, 유교 경전과 제주 주민에게 친숙한 표현을 사용한 김원영 역시 가톨릭만이 규범이자 정도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제주도에 처음 들어온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 자신이 신을 바르게 이해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 3.3. 해방 이후 가톨릭과 개신교의 개종주의 전략

---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54)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174쪽.

55) Paul F. Knitter, *No Other Name?: A Critical Survey of Christian Attitudes Toward the World Religions* (Maryknoll, NY: The Orbis Books, 1985), pp. 73–167. 이 책에서 니터는 다른 종교들에 대한 기독교의 태도를 네 유형의 모델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는 내가 본문에서 언급한 주류 개신교 모델과 가톨릭 모델 외에도 단지 하나의 진리만이 있다고 주장하는 보수적 복음주의 모델과 중심에 이르는 데는 많은 길이 있다고 말하는 신 중심적 모델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대한민국의 아홉 개의 도 중에서 제주도에만 개신교인의 수보다 가톨릭교인의 수가 더 많다. 제주도에서 가톨릭의 확장이 개신교보다 더 성공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해방 이후 가톨릭 교회가 제주 주민들의 경제적 여건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해왔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sup>56)</sup> 제주 본당은 1946년부터 학교를 운영해왔고, 현재 제주 교구는 여섯 개의 유치원과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 아일랜드 출신의 맥글린치(P. J. McGlinchey) 신부를 중심으로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농촌 근대화 사업은 주민들에게 가톨릭교회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 주었다. 맥글린치는 주민들의 개종을 목표로 하지 않고, 대신 “가난을 막아야 한다: 새 포교 방식의 시험장”이라는 모토를 내세우며 농민 계몽과 농촌 자립에 집중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가톨릭 단체들의 재정지원을 받아 초기 자금을 마련하였고, 토지 개량, 가축 보급, 다양한 가내 수공업 개발 등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sup>57)</sup> 제주도의 지역 사회에 신용 협동 조합을 도입한 것도 맥글린치 신부였다. 농촌 근대화 운동이 자리를 잡아가는 첫 10년 동안 가톨릭교인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았으나, 가톨릭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는 매우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 맥글린치의 운동 아래로 제주도의 가톨릭 교회는 많은 “새 포교 방식”을 개발하여, 수직사, 목장, 저수지, 농업 훈련 센터, 개척 농가, 사료 공장, 비영리 의료기관, 양돈 협업 농가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많은 시설들을 세우고 운영해왔다.

다음으로 이 논문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인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바로 한국 고유의 전통적 요소를 수용하려는 가톨릭의 노력이다. 그 중에서도 죽음과 관련된 가톨릭 의례들은 많은 제주도 주민들이 가톨릭에 마음을 여는 데 기여했다. 가톨릭교회는 교리에 완전히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유교, 토착종교, 불교 등의 의례 형식을 수용했다. 조상 제사의 허용은 제주도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기독교에 매력을 느끼면서도 오랜 전통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가톨릭교회에 가까워지도록 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 전부터 제사를 효의 한 방식으로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가톨릭교회는 공의회 이후 교

56) 여기서 나는 정치, 경제적인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설명이 가능한 일제시대 기독교의 개종주의 방식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57) 맥글린치의 농촌 근대화 운동은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189-202, 206-209, 217-218, 242쪽을 참조했다. 맥글린치를 통해 주민들에게 재정을 지원한 단체로는 미국의 ‘가톨릭 구제회’(C.R.S.: Catholic Relief Services), 미국 ‘전국 가톨릭 복지협의회’(N.C.W.C.: the National Catholic Welfare Council), 그리고 독일 주교회의 해외원조 위원회 미시오(Missio) 등이 있다.

회의 지침에 따라 제사 절차를 개정하여 실시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였다. 제사 중 조상의 영혼을 부르거나 돌려보내는 등 죽은 자와 직접 교류하는 절차를 시편과 기도문을 외우는 것으로 대체하기는 했지만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하는 등 제사의 기본 형식은 유지했다. 제사의 허용은 조선시대 가톨릭교인들이 펍박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제사를 거부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아주 큰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톨릭 장례는 많은 제주도 주민들을 개종시키는 데 기여했다. 제주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신자가 죽으면 사제와 신자들이 현신적으로 장례와 매장을 돋는 가톨릭 전통은 신자가 아닌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으며, 교회 측에서도 장례 봉사가 가톨릭 선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한다. 죽음 이후와 제사에 관심이 많은 제주 주민들이 가톨릭 장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주도에 있는 대부분의 본당성당에는 장례식장이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현용준은 가족공동묘지에 묻힐 형편이 되지 못하는 제주도 주민들이 “할 수 없이 천주교를 믿어서 천주교 공동묘지에라도 가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어 주기도문이니 십계명이니 하나도 모르지만 성금을 내면서 천주교 신도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 한다.<sup>58)</sup> 가톨릭 장례는 우리나라 전통 방식을 수용한 모범적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특히 동료 신자의 장례식에 온 교인들이 쉬지 않고 암송하는 연도(煉禱, 혹은 위령 기도)는 우리나라 전통 음악 어법과 리듬을 그대로 맞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사후 49일째 되는 날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하여 사십구재를 지내는 불교 전통에 익숙한 유가족이 요구하면 가톨릭 사제들은 같은 날에 죽은 신자를 기념하는 미사를 집전한다. 유가족이 원하면, 시신에 절을 하며 예를 표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가톨릭 교리에 명백하게 위배되지 않는 모든 형식의 전통 장례 절차가 허용된다. 가톨릭 장례와 관련하여 내가 인터뷰했던 세 명의 제주 교구 신부들은 가톨릭교회가 주도하는 장례가 주민들의 취향과 욕구를 충족시켜 제주도에서 개종자가 늘어나는 데 기여해왔다는 데 동의했다.<sup>59)</sup>

물론 전통 방식을 존중하는 가톨릭의 태도 자체가 개종주의 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토착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기독교를 이식시키려 했던 과거의 개종주의에 대한 반성이 결실로 이어진 것이며, 주민들에게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이 주민들의 마음을 끈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도 토착적 요소의 수용이 제주 주민들의 개종

58) 현용준, 「제주도 사람들의 삶」, 205쪽.

59) 2010년 7월 19일 제주시 연동에 있는 성당에서 면접했다. 세 명의 신부 모두 제주도 출신으로 제주도에서 계속 일해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분위기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가톨릭이 장례와 제사 등에서 오랜 전통을 수용하면서 중심적인 부분은 지켜간다고 한자면, 이는 토착종교와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그 일부 요소를 수용하는 동시에 자신의 우위와 차별성을 분명히 한 외래종교들의 개종주의 정책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다.

가톨릭교회에 비교하면 개신교 교회들은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일에 성공하지 못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개신교는 토착종교에 속했던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가톨릭만큼 제주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지도 못했다. 사실 전국 아홉 개의 도 중에서 개신교 기관에서 병원과 학교를 세우거나 운영하지 않는 곳은 제주도가 유일하다. 개신교단들이 육지에서는 이미 1885년에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과 학교를 세운 이래 지금까지 많은 병원과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제주도는 한국 개신교회들의 사회적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에는 가톨릭이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신교인들이 있다. 주민들에게 친숙한 설명 방식을 이용하고 전통적인 의례를 수용하며, 가능한 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진 한 장로교 목사와 인터뷰를 하며 그가 생각하는 대안들을 들어볼 수 있었다.<sup>60)</sup> 그는 미국의 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여러 상을 받은 화가이기도 하다. 대중강연이나 지역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는 등의 활동으로 제주도 개신교계에는 잘 알려진 사람이다. 이러한 경력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골지역에서만 계속 목회를 해오고 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을 이용하여 맥글린치 신부가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선교의 방식”을 개발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전에 일하던 교회와 현재 시무하는 교회에 부임한 후 전임자가 목회할 때보다 출석 교인의 수를 다섯 배로 증가시킨 것을 보면, 지금까지 그의 “새로운 선교의 방식”은 매우 성공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한국전쟁 직후에 극심한 가난에 시달린 제주 농민들에게 맥글린치 신부가 부르짖었던 “가난을 막는 일”이라는 슬로건이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룬 오늘날에는 그다지 매력이 없는 말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시골 주민들의 문화적, 교육적 관심에 호소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한다. 그는 교회에서 인근 지역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로 미술과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바이올린을 전공한 아내는 무료 음악교실을 열었다. 그의 교회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연주자

---

60) 2010년 7월 1일 한경면 조수리에 있는 교회에서 면접했다.

들과 작가들을 초청하여 무료 음악 콘서트와 미술 전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는 기존 종교전통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주민들을 끌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있다. 그가 주례하는 결혼식과 축하연은 교회 마당에서 전통적인 제주 결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장례 형식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 중이며, 먼저 유교나 토착종교식 장례 참여자들이 입었던 것과 같은 예복을 디자인하여 장례를 집전할 때 입을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개신교 교회들, 특히 제주 시골 지역의 교회들이 개신교 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전통적인 조상 제사와 유사한 추도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전통 제사상을 고려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나, 절을 하지는 않더라도 식탁에 추모하는 사람의 사진을 올려놓는 것은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의 교회 장로들을 설득하고 교단 지도자들의 공감을 얻어야 이러한 계획의 실현이 가능하겠지만, 기독교와 전통 종교체계 사이의 접점을 찾아 제주 주민들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그의 시도는 제주 개신교계에 점점 더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내가 인터뷰했던 목사의 주장은 가톨릭의 모델을 따라 제주 주민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사회적 기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과 전통적인 의례의 형식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종교적인 설득력만이 주민들의 마음을 끄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기에, 개신교의 확장이 더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시도가 필수적일 것이다. 개신교가 제사와 장례에서 개신교가 지켜온 교리적 부분들이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토착종교의 요소를 수용하자는 그의 제안은, 개종 대상자들의 토착종교적 요소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동시에 자신의 차별성과 우위를 선언했던 제주 외래 종교들의 개종주의 전략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 3.4. 소결

제주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톨릭과 개신교는 적극적인 개종주의 전략을 펼쳤고, 일부 주민들을 개종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가톨릭과 개신교가 주민들에게 교리를 설명한 방식은 달랐다. 최초의 신부인 김원영과 첫 개신교 선교사 이기풍을 비교하면, 제주 시골지역 주민들에게 친숙한 개념들과 우주에 대한 이해를 이용한 것은 가톨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가톨릭은 전통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수용한 의례 방식을 제시하여 완전히 낯선 외부 종교의 이미지를 지우고 토착종교 방식

에 익숙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기존의 전통적인 종교들과 공통점을 찾아 다르지 않음을 부각시킨 이러한 전략은 1950년대 이후 사회 경제적인 주민 지원 정책들과 맞물려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개신교 교회들은 토착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 최근에야 일부 신자들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개종주의 방안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독교의 교리와 세계관에 부합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존 종교전통을 인정하고 형식적인 면을 수용한다. 가톨릭이 제사의 형식을 수용했지만 제사에서 신을 불러오는 절차는 인정하지 않고, 전통 음악에 가까운 방식으로 위령기도를 하지만 내용은 교회의 가르침과 전통에 근거한 것이다. 나와 인터뷰한 목사가 계획하는 것도 개신교의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주민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의례 방식의 개발이었다. 유사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전통적 방식에 익숙한 주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하지만, 의례와 사고 방식 모두 기독교에서 정한 틀에 따른다. 물론 가톨릭과 개신교가 다른 종교 신자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둘 다 세계의 이해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의 방식이 옳다는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다. 다른 종교와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일부 의례의 형식을 수용하더라도, 개신교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교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톨릭은 가톨릭 신부가 집전하는 성사를 통해서 죄 용서와 내세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결국 세상을 창조한 신의 인간 구원의 계획은 기독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기독교에서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 4. 결론

지금까지 이 논문은 외부에서 제주도로 들어온 종교들이 기존 종교의 사고 및 행위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 주민들을 개종시키고자 할 때 일어나는 갈등과 통합, 질서 형성 등의 양상을 검토하였다. 제주도에 새로 유입된 종교들은 기존 종교들의 매력적인 의례적 요소들을 자신의 체계 속에 수용했고, 기존 종교에도 어떤 부분적인 진리가 있다고 인정했으며, 이 “부분적인 진리”를 개종주의 전략의 도구로 사용했다. 제주도에서 여러 종교들이 만나는 과정을 살펴보면, 개종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종교는 다른 종교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먼저 다른 종교들에서 자신과 공통된 일부 요소들을 찾아 칭찬하고 인정하는 모

습을 볼 수 있다. 이 공통 요소를 내세움으로써 개종시키고자 하는 대상들에게 자신이 낯설게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종주의의 입장에 있는 종교는 공통 요소들에서도 자신과 타자가 구별된다는 것 역시 분명히 한다. 오직 자신만이 전체의 진리를 명백하게 보일 수 있는 반면 다른 종교들은 공통 요소들로부터 부분적인 진리만을 희미하게 보일 뿐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이다.

외래종교인 유교와 불교는 무속 토착종교와 어느 정도의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방식들을 찾아냈고, 공존의 방식을 통해 토착종교에만 의존하던 많은 주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유교는 19세기 초에 개종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토착종교와 같은 요소들을 부각시키는 비교 전략을 사용했고 불교는 20세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다. 유교와 불교, 토착종교는 죽음과 영혼에 대한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공존할 수 있다. 또한 토착종교를 따르는 조선 후기 제주 주민들은 큰 거부감 없이 유교의 개념과 의례를 수용했던 것이며, 오늘날의 주민들은 심방에게 가는 대신 불교 승려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교와 불교는 토착종교를 불완전한 것으로 규정하여 자신들의 우월한 위치를 확보하려 했다. 이들에게 토착종교는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구원을 이루는 적절한 방식이 될 수 없었다. 이 두 외래종교는 개종주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과 기존 토착종교의 유사성을 이용한 것이다.

1900년경 제주도에 들어온 기독교는 기존 종교전통과의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 처음부터 공격적인 개종주의를 펼친 기독교는 기존 종교와의 다름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주민들을 개종시킬 때 전통적인 지역 관습을 포기하고 기독교적 사고와 행위 방식을 수용하도록 독려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도 기존 종교체계와 접점을 찾아 주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있었다. 최초의 제주 가톨릭 신부는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왔던 서양 신부들의 본을 따라 전통적 세계관을 이용하여 기독교 신학 및 우주론을 설명하고자 했다. 제주 가톨릭교회는 사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가서려 노력하였으며, 제사와 장례에 주민들에게 친숙한 전통적인 형식을 도입하여 주민들의 마음을 열 수 있었다. 가톨릭에 비해 토착적인 의례와 세계관이 주민들에게 갖는 의미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일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개신교에도 제주 주민들의 종교적 감수성을 존중하고 주민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의례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독교의 교리와 세계관에 부합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존 종교전통을 인정하고 형식적인 면을 수용한다. 결국 세상을 창조한 신의 인간 구원의 계획은 기독교를 통해서만, 혹은 기독교에서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외래종교가 개종주의 입장에서 개종 대상으로서 기존의 종교를 만나고, 토착종교가 개종주의를 표방하는 외래종교를 만나는 상황은 자연스럽게 비교를 유발해 왔다. 제주도의 외래종교들은 무속적 토착종교에 적어도 부분적이거나마 자신과 일치하는 옳은 면이 있다고 인정했고, 이를 강조하여 주민들을 개종시키는 데 이용하고자 했다. 또한 주민들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토착 의례의 중요성을 어떤 식으로든 인식했다. 유교와 불교는 토착종교 의례 절차를 자신의 방식으로 시행했고, 가톨릭은 이전에는 거부하며 심하게 비난했던 토착 의례 형식을 받아들였으며, 일부 개신교인들조차 토착 의례와의 접점을 수용하려 시도하고 있다. 다른 종교와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과 유사하거나 다르면서도 용인 가능한 요소들을 찾아내며, 이를 통하여 개종 대상자들이 자신을 완전히 낯선 타자가 아니라 친숙한 존재로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각 종교는 다른 종교와의 유사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다른 종교는 갖지 못한 자신의 독특한 차별성을 강조한다. 각 종교는 다른 종교에서 옳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만이 신과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세계의 질서와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여 자신의 우월성과 차별성을 주장한다. 종교들의 만남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교는 지적인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주도의 종교 지형에서 여러 종교들이 만나 서로를 비교하고 유사성과 차별성을 찾아내는 과정을 다원주의가 추구하는 여러 종교의 상호 이해 및 존중의 이상과 비교할 수 있다. 다원주의는 한 사회 내에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상태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세계관이다. 다원주의를 주창하는 학자들은 각 종교들이 자신의 상대성과 다른 종교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며, 서로 대화하며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61)</sup> 여러 종교들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종교가 방

61) Diana L. Eck, *A New Religious America: How a "Christian Country" Has Become the World's Most Religiously Diverse Nation* (New York: HarperCollins, 2001); Eck, "Dialogue and Method: Reconstructing the Study of Religion," in Kimberley C. Patton and Benjamin C. Ray (eds.), *A Magic Still Dwells: Comparative Religion in the Postmodern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William E. Connolly, *Pluralism*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5); John Hick and Paul F. Knitter (eds.), *The Myth of Christian Uniqueness: Toward a Pluralistic Theology of Religions* (Maryknoll, NY: The Orbis Books, 1987); Raimon Panikar, *The Intrareligious Dialogue*, revised edition (New York: Paulist Press, 1999[1978]); Knitter, *No Other Name?* 등을 참조할 것. 물론 1980년대 이전까지 "다원주의"라는 용어는 이보다 제한된 의미로 사용되곤 했다. 버거는 "'다원주의'라는 용어는 분명히 대개 다

해 받지 않으며 질서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은 다원주의가 아닌 법이나 시민의식이다. 특정한 종교에 헌신적인 사람들과 각 종교 집단들은 다른 종교에 별 관심이 없거나, 다른 종교의 가치와 진정성을 선뜻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각 종교들은 다원주의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제주도 역시 여러 종교들이 공존하는, 종교적으로 다원적인 상황에 있고, 이 상황은 각 종교가 다른 종교와 자신을 비교하는 장이 된다. 이때 각 종교는 다른 종교와 자신의 유사한 부분을 찾아내어 인정하고, 일부 요소를 수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개종주의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지, 공존 자체를 중시하고 다른 종교를 존중할 것을 강조하는 다원주의에 동의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와 같은 가치의 발견과 인정은 결국 각 종교들이 자신의 우위와 독특한 차별성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제주도의 여러 종교들이 서로를 비교하여 유사성을 찾고 다른 종교의 가치를 인정한 것은 공존의 상황 자체를 중시하며 다른 종교를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개종주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였던 것이다.

주제어: 개종주의, 비교전략, 유사성, 차별성, 제주 토착 종교, 유교, 불교, 기독교

원고접수일: 2012년 4월 16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15일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20일

---

른 종교 집단들이 국가에 의해 관용되고 서로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가 원형적이라 할 수 있을, 그러한 경우를 가리키는 데만 사용되었다”고 말한다. Peter. L. Berger, *The Sacred Canopy: Elements of a Sociological Theory of Religion* (Garden City, NY: Doubleday, 1967), p. 135.

## 참고문헌

### <국내서>

- 고성훈 외, 『민란의 시대: 조선시대 민란과 변란들』, 서울: 가람기획, 2000.
- 김동섭, 문순덕, 양영자, 『한국의 가정신앙: 제주도 편』,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 김원영, 『수신영약(修身靈藥)』, 김영환 역,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제주: 천주교 제주교구, 2001[1900], 757-799.
- 문무병,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서울: 민속원, 2008.
- 문무병, 양영자, 김순이, 『제주신화집1』, 제주: 제주문화원, 2010.
-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 박은배, 『하나님의 거처』, 서울: 새로운 사람들, 2009.
- 성안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제주성안교회 100년사』, 제주: 제주성안교회, 2010.
- 이능화, 『조선무속고: 역사로 본 한국 무속』, 서영대 역주, 파주: 창비, 2008[1927].
- 이사례, 『이기풍, 순교로 삶을 마감한 한국 교회 최초의 선교사』, 서울: 기독교문사, 2008.
- 이원진, 『역주 탐라지』, 김찬흡 외 역, 서울: 푸른역사, 2007[1653].
- 이형상, 『남한박물: 남쪽 벼슬아치가 쓴 18세기 제주 박물지』, 이상규·오창명 역주, 서울: 푸른역사, 2009[1704].
- 장하림, 『만화로 보는 이기풍 목사의 삶과 신앙 2』, 서울: JCR Kids, 2008.
-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제주: 천주교 제주교구, 2001.
- 조성윤, 이상철, 하순애, 『제주 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서울: 백산서당, 2003.
- 최종성, 『조선전기 종교혼합과 반(反)혼합주의: 유교, 불교, 무속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47 (2007), 37-81.
-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신화』, 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 현용준, 『제주도 사람들의 삶』, 서울: 민속원, 2009.
- ,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서울: 집문당, 2002.
- , 『제주도 신화』, 서울: 서문당, 2005[1976].

## &lt;국외서&gt;

- Berger, Peter. L. *The Sacred Canopy: Elements of a Sociological Theory of Religion*. Garden City, NY: Doubleday, 1967.
- Connolly, William E. *Pluralism*.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5.
- Eck, Diana L. *A New Religious America: How a "Christian Country" Has Become the World's Most Religiously Diverse Nation*. New York: HarperCollins, 2001.
- . "Dialogue and Method: Reconstructing the Study of Religion." In Patton, Kimberley C. and Ray, Benjamin C. (eds.). *A Magic Still Dwells: Comparative Religion in the Postmodern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 Hick, John and Knitter, Paul F. (eds.). *The Myth of Christian Uniqueness: Toward a Pluralistic Theology of Religions*. Maryknoll, NY: The Orbis Books, 1987.
- Knitter, Paul F. *No Other Name?: A Critical Survey of Christian Attitudes Toward the World Religions*. Maryknoll, NY: The Orbis Books, 1985.
- Panikar, Raimon. *The Intrareligious Dialogue*, revised edition. New York: Paulist Press, 1999[1978].
- Smith, Jonathan Z. *To Take Place: Toward Theory in Ritu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 . *Drudgery Divine: On the Comparison of Early Christianities and the Religions of Late Antiqu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 . *Relating Religion: Essays in the Study of Relig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 Walraven, Boudewijn. "Popular Religion in a Confucianized Society." In Haboush, JaHyun Kim and Deuchler, Martina (eds.). *Culture and the State in Late Choson Kore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Asian Center, 1999.

<Abstract>

# Conflicts and Coexistence of the Native Religion with Imported Religions in Jeju Island:

Focusing on Comparative Strategy of Proselytism

Yohan Yoo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parative strategies of proselytizing religions should be noted in understanding religious topography of Jeju-Do. Religions in Jeju-Do have compared themselves with others and have articulated both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Religions from outside have tried to find common elements between themselves and the native religion or preexisting religious system, exploiting the analogical concepts to make themselves look familiar to the native people. In addition, the imported religions in Jeju-Do have recognized at least some "partial truth" in preexisting religions and have appropriated this partial truth for the rhetoric of proselytizing. In one way or another, they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some native rituals which were not easily separable from the people. Confucianism and Buddhism have accepted some ritual processes of shamanistic religion into their own; Catholicism has approved of some native or Confucian rituals which it used to reject and criticize harshly; even some contemporary Protestant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ccommodating or imitating traditional rituals. Religions trying to convert people to their faith have often appreciated other religions and accepted other religions' elements that may harmonize with their own ideas and practices. Simultaneously, however, religions of proselytism never failed to articulate their uniqueness that they thought the others could not rival. Other religions' partial truth and limited value showed the sharp contrast

with the complete truth and value of proselytizing religions. They have not regarded the others as providing the proper way of keeping the order of the universe or attaining salvation of human beings. Nor have they acknowledged the full value of the others. They have confirmed their superiority or even supremacy over the other religions. It is a part of the comparative strategy of proselytism that religions in Jeju-Do not only recognize virtues of other religions and commonalities between religions but also articulate their own uniqueness and superiority.

Key Words: proselytism, comparative strategy, commonality, uniqueness,  
Jeju native religion, Confucianism, Buddhism, Christianity